



한국 기업인의 과테말라 입국을 위한 구비 서류 안내

1. 입국자 명단 및 여권 컬러 스캔본(첫째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다 스캔)
2. 건강진단서(코로나 19 음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스페인어 번역본(번역 공증 안 받으셔도 되고 번역업체를 통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3. 국경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과테말라 국민의 신분증(DPI), 면허증, Circulation card (Tarjeta de circulación) 스캔본
4.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앞으로 편지 보내야 합니다:
 - 편지는 스페인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 개인 비행기로 입국할 경우 항공기 정보, 항공기 운항 및 착륙 허가신청서,
 - 과테말라 입국 사유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 국경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과테말라 국민에 대한 정보 (과테말라 신분증(DPI), 면허증, Circulation card (Tarjeta de circulación),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할 예정인지(도시 및 주),
 - 회사가 발행해야 하고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 입국 희망하는 기업인이 1인 이상이지만 항공편 정보가 같은 경우에는 편지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 편지 예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구입이 완료된 항공티켓

> **입국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주말 제외)에 상기 서류를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메일(embcorea@minex.gob.gt)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상기 서류와 공문을 과테말라 정부에 보내고 승인이 오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GOBIERNO de
GUATEMALA**
DR. ALEJANDRO GIAMMATTEI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EMBAJADA DE GUATEMALA
EN LA REPÚBLICA DE COREA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2. 여권 사진 1매
3. 구입이 완료된 왕복 항공티켓(과테말라에서의 체류 기간이 9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영문 재직 증명서(타언어의 경우 번역본 및 공증 필요) (회사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5. 본인 명의 통장 잔고 증명서 영문(대사관 방문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본인 이름이 기재된 국제 신용 카드
6. 수수료 50 달러(대사관에는 잔돈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7. 만약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대사관에 방문하실 때 원화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을 경우만 해당). 대략 3000 원 정도 입니다.

대사관 비자 접수 업무는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이며, 비자는 평일 기준 접수일로부터 이틀 뒤에 발급됩니다.

대사관에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한 날짜를 문의하셔야 됩니다.

과테말라에 입국하게 되면 보건 당국이 증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은 보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과테말라 입국 희망자들은 의무 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점검 시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 당국이 과테말라인, 외국인 상관없이 의료 센터로 안내합니다.

Sejong-daero 55, Jung-gu, Seoul 04513, Booyoung Taepyeong Building
Teléfonos: 00 82-2-771-7582/83 - 00 82-2-757-1650
www.coreadelsur.minex.gob.gt - embcorea@minex.gob.gt

Síguenos en:

